



인협, 해외서 첫 정기이사회 및 산업시찰 동양잉크 중국 제남공장 방문 화광정공 제품 설명회 개최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김남수)는 지난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중국 진안에 위치한 (주)동양잉크(대표이사 최대광) 제남공장 에서 산업시찰 겸 2012년 제6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잉크산업을 이해하고 상생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2박 3일 동안 ▲동양잉크 제남공장 방문 ▲2012년 제6회 정기이사회 개최 ▲화광정공 CTP·인쇄기 설명회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번 산업시찰은 지난해 제지산업 산업시찰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것이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이번 산업시찰에는 김남수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을 비롯해 홍우동 인협 명예회장, 이충원 인쇄연합회 전 회장 등 40여 명의 협회 이사, 분과 위원들이 참석했다.

김남수 회장은 “경영일선에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이사님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협회 산하 여러 위원회에서 수고하는 위원님들과의 교류와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인쇄업계의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수고를 아끼지 않은 업계의 원로 분들과 함께 잉크산업의 미래를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하게 돼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동양잉크 제남공장 방문...감사패·다라니경영인본 전달

행사 첫날인 9월 20일에는 동양잉크 제남공장을 방문해 생산 설비 및 생산제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 생산라인을 둘러 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남수 회장은 인사말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사님들과 분과위원님들에게 잠시나마 시름을 덜고 심신을 단련하면서 업계 발전과 불황타개를 위한 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동양잉크 중국제남공장 산업시찰을 개최하게 됐다. 여러모로 협력해 준 동양잉크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진정한

공생과 파트너십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동양잉크 최대광 대표는 “대한인쇄문화협회 임원 및 위원님들을 중국 제남공장으로 초청하게 되어 기쁘다.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고객만족과 자부심을 제공하고 문화기업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남수 회장은 동양잉크가 우리나라 잉크산업을 선도해 오면서 인쇄 잉크 개발에 매진해 인쇄문화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전 세계 60여개 나라에 인쇄잉크를 수출해 한국 인쇄산업의 위상을 높였을 뿐 아니라, 제남공장을 견학할 수 있도록 해준 데 대해 감사패와 무궁정광대다라니경 영인본을 증정함으로써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기 이사회 개최...5개년 계획·업계 화합 협조 부탁

동양잉크 제남공장 산업시찰에 이어 동양잉크 제남공장 2층 회의실에서 2012년 제6회 정기이사회가 개최됐다. 김남수 회장은 개회사에서 “복잡한 서울을 벗어나 2박 3일의 일정으로 산업시찰을 겸한 이사회를 갖게 되어 기쁘다”며 “7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쇄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 발표, 8월 중국도서전 한국인쇄관 마련, 9월 국제인쇄산업전시회 및 국제인쇄포럼 주최 등 바쁜 일정을 보내왔다.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이사님과 분과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인쇄업계 발전과 인쇄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이 차질 없이



1. 인협 산업시찰단에게 환영의 의미로 꽃을 달아주고 있다. 2. 이사회 전경 3. 동양잉크 최대광 사장이 산업시찰단에게 중국제남 공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4. 동양잉크 제남공장을 시찰중인 산업시찰단. 5. 동양잉크는 건물에 플래카드를 부착해 인협 산업시찰단을 환영했다. 6. 김남수 회장이 최대광 동양잉크 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사님들과 분과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이사회에는 ▲업무보고 ▲감사보고 ▲2012년도 2/4분기 재무제표 보고 ▲기타사항으로 진행됐으며, 상정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기타사항으로 김남수 회장은 인쇄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정치인 로드맵작성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사들은 인쇄 단체 간 화합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남공장 산업시찰 및 이사회를 마친 일행은 4시간 30여분 동안 버스를 타고 숙소인 청도로 이동했다. 저녁 환영연에서 홍우동 인협 명예회장은 “인협에서는 인쇄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에 따른 인쇄문화박물관 설립을 위해 인쇄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동양잉크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며 “인쇄업계의 발전을 위해 다함께 힘을 합치자”고 당부했다.

화광정공 CTP·인쇄기 등 주요제품 설명

다음날 21일 오후 6시에는 덕태대주점 회의실에서 화광정공(대표 손동강) CTP 및 인쇄기 설명회를 가졌다. 현재 동양잉크 재료사업부는 화광의 한국총판을 맡고 있다. 화광수마는 화광정공에서 2011년 투자 설립한 디지털 인쇄설비, CTP 인쇄설비, 인쇄시스템 등을 전문으로 개발 공급하는 회사다. 화광수마는 엄격한 검사과정을 통해 생산과정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전체 가공기술은 중국을 비롯해 세계적으로도 앞서 있다.

화광수마의 주요 제품으로는 HG79-4 인쇄기, HG-플렉소 미니 CTP, HGS120C/150C, HG-Angel 시리즈 128채널 써멀 및 UV CTP가 있다. 최신 장비인 HG-Angel 128채널 CTP는 수십 년 축적된 화광정공의 인쇄장비 생산 기술을 통해 개발된 제품으로 자동간지분리, 판지 자동 투입, 수평배출기능 등을 특징으로 한다. ㉠



7. 화광정공 제품발표회에서 김남수 인협 회장, 최태광 동양잉크 대표, 손동강 화광정공 대표 8. 화광정공 제품발표회 전경 9. 인협 시찰단 일행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0. 시찰단은 공식행사의 청다오 인근 지역 관광의 시간도 가졌다.

>> 동양잉크 제남 공장은



2004년 8월 제남시 천교구 화공공업원내 설립됐으며, 인쇄잉크와 합성수지 생산 공급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현재 생산 53명, 기술 10명 등 총 9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생산규모는 2009년 3531톤, 2010년 3962톤, 2011년 4027톤에 달한다. 현재 중국내 26개 지역에 51개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다. 2015년 연매출 6000톤 달성, 친환경 미래기업 창조, 직원과 고객이 믿고 신뢰하는 기업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소 | 중국 산둥성 제남시 TEL | 86-531-8576-1826 FAX | 86-591-8576-9598